

광주시, 불법 현수막 근절 팔 걸었다

광주시내에 공동주택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5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업체 대표자나 현장설치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

대표자·현장 설치자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

5개 자치구 간담회...11개반 44명 정비반 편성

현수막 현장 정비에 나서 99억3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최근까지 주택조합원 모집이나 공동주택 분양 등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는 11개 반 4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365일 정비

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 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취약 시간대 단속인력을 배치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택분양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 행위를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주택분양업체 등의 공동주택 건축이 늘어나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나 현장 설치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지역 산업단지

토양오염도 '양호'

해남산단 공장·주변 49곳 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해남산단 공장 내부와 주변지 등 49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해남산단 내 남영전구 수은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유출 등 산단에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공장 10곳, 공장 주변 26곳, 녹지지역 13곳 등 총 49곳, 100개 지점이다. 조사항목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 8종, 벤젠, 톨루엔 등 유류 7종 등 모두 17개다.

조사 결과, 중금속 평균농도는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보다 1~59% 낮게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kg당 아연(Zn)이 75.1mg, 납(Pb)이 27.1mg, 크롬(Cr)이 14.1mg, 구리(Cu)가 8.8mg, 니켈(Ni)이 5.4mg, 카드뮴(Cd)이 2.0mg, 수은(Hg) 0.02mg 등이다.

다만 공장 주변지역의 경우 공장 내부와 녹지지역보다 아연(Zn), 납(Pb), 수은(Hg) 등이 1.3~5.5배 높게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류 오염원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말한다. 광주시는 5일 국회에서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와 변제일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강호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강호축'을 제시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축'은 지금까지 경북축 중심의 국가 국토정책으로 인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던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지칭한다.

산단공, 광주·전남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광주첨단국가산단·영암 대불산단·광양 국가산단 3곳

광주·전남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대행사업자가 노후 산단의 부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과 산업 고도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전남지역 사업 대상 산업

단지는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다.

산단공은 이들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구조 고도화시설과 첨단 업무시설,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접수는 오는 4월5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오는 3월9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키콕벤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는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 구조고도화추진

단과 대불지사 구조고도화추진단, 여수·광양지사 구조고도화추진단에서 접수 받는다. 산단공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한다.

산단공 본사와 지역 추진단에서는 예비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재성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획일적인 생산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호응이 중요하다"며 "산단공은 용도변경 허용 등의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광주 동구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동구청년네트워크 위원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만19~39세 청년으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동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 ▲동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네트워크위원회는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운영 등 참여 및 권리 ▲인자리 창출, 창업 등 '고용확대' ▲인재양성, 직업훈련 등 '능력개발' ▲주거안정, 청년복지 등 '생활안정' ▲문화공간조성, 문화행사 유치 등 '문화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서구, 전국 최초로 유개승강장에 쿠션매트 설치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쿠션매트를 설치했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유개승강장 대기 의자에 쿠션매트를 설치한 것.

기존의 버스승강장 대기 의자는 목재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1천 6백여만원을 투입, 지난달 서구 지역 유개승강장 230개소에 쿠션매트 설치를 마무리했다.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의 나무의자나 플라스틱 의자를 철거하지 않고 의자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남구 "바구니 들고 전통시장 장보러 갑시다"

광주 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구청 직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는 '2018년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관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각 실·과·소 및 16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함께하게 된다.

남구청 소속 직원들은 이날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에서 각각 설 명절 음식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북구, 중소기업 및 기능인력 청년인턴제 추진

광주 북구가 내달이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문제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2018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20일까지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 미취업자, 관내 중소기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인력 청년인턴을 각각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실시한 청년 고용 촉진 사업으로 현재까지 19개 기업 23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북구에 있는 5인 이상 3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과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1984.1.1일 이후 출생한 자)이다.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 이웃 나눔 활발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5일 위기기구나 고려인 동포를 위해 각각 후원금과 쌀을 전달했다.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오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기가정 후원금 250만원을 김근호 어룡동장에게 전달했다. 어룡동은 후원금을 5세대에 고루 전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정연 회장 등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쌀 500포(500만 원 상당)를 기증했다.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소촌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대표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매해 명절을 맞아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